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1호 【루계 제24634호】 주체103(2014)년 8월 9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제강국, 문명국건설도 사회주의위력, 집단주의위력으로 본때있게 하자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를 앞당겨 끝내자

618건설돌격대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618건설돌격대원들의 궐기모임이 8일에 진행되였다.

최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호내각사무장, 618건설돌격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최휘 제1부부장의 보고에 이어 현장지휘부 참모장 조용하, 함경북도려단 정치부장 김청길, 평양시려단 대원 김학석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철령아래에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으로 꽃펴나고있는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시여 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능력확장공사를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618건설돌격대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 길에서 돌격대가 발휘하고있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과수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대상별, 단계별건설목표를 제기일에 점령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로포장공사와 콩크리트지지대생산 및 설치, 과일저장고건설 등 전반적인 공사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능력확장공사를 빛나게 결속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자체의 건재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여러가지 용도의 쇠그물울타리들을 대량생산하여 과수원들과 건설장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려단별,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공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모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수농장으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대로 철령아래에 사과바다를 펼쳐놓음으로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조선속도, 제2의 희천정신창조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7월전투과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발전소건설공사가 불리한 7월에도 전체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현장지휘부적으로 굴착은 129%, 성토는 116%, 콩크리트치기는 131%이상 수행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히 모든 발전소건설장들에서 7월전투과제를 지표별로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청천강용사들의 불굴의 기개와 배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불리한 날씨변화에 맞게 공사조건을 주동적으로 유리하게 마련해가며 한개 구조물대상이라도 더 질적으로 타입하고 월전투과제를 지표별로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큰물피해를 줄이고 당앞에 맹세다진대로 높이 내세운 올해목표를 원만히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건설전투에서 청천강용사의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려는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열렬한 충정과 불굴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자랑찬 현실로 펼쳐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건설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장마철조건에서도 발전소건설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할 목표밑에 7월전투과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지휘부일군들은 각 단위들에서 높이 세운 굴착 및 성토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타입장을 더 많이 형성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부문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들을 앞세워 보장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우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기동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사상의 위력으로 방대한 월전투과제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열의밑에 수백리구간의 발전소건설장들을 끊임없이 오가며 장마철건설전투와 큰물피해막이를 위한 기백있는 화선식정치사업과 사회주의경쟁의 도수를 부쩍 높이였다. 이 과정에 만단의 큰물피해방지대책이 세워지고 모든 단위들에서 언제 공사와 함께 발전기실하부설비조립과 콩크리트치기공사가 박력있게 추진되여 장마철조건에서도 강수위변화에 끄떡없이 발전소건설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되였다.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7월에 더 높은 공사실적을 올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생전의 념원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한마음안고 건설장마다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전투를 벌리였다.

평안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희천8호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월계획수행의 앞장에 섰다. 이미 발전기실공사에서 큰 성과를 거둔 이들은 장마철전까지 한개의 언제수문기둥공사라도 더 추진할 목표밑에 우안의 가물막이폭을 부단히 넓혀나가면서 기초굴착과 타입, 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를 본때있게 벌려나갔다. 특히 그 어떤 큰물이 져도 발전소건설을 중단없이 내밀 작전밑에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전투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회리실, 고정륜 등 발전기실의 주요하부설비조립을 앞세우며 기동적인 타입전을 벌림으로써 건설장적으로 제일 많은 량의 콩크리트치기실적을 올리였다.

희천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도려단 전투원들은 우안언제공사에서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수문기둥공사를 전구간으로 확대해나갈 통이 큰 목표밑에 발전기실공사를 동시에 다그치면서 결사관철의 의지로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전투를 전격적으로 내밀었다. 그리하여 마지막수문기둥의 기초타입까지 기어이 해제끼는 집단적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월계획을 기한전에 훨씬 넘쳐 수행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는 영광을 지니였다.

희천6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안북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좌안의 언제수문기둥과 옹벽, 비일류부언제타입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7월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희천12호발전소의 언제건설을 맡은 남포시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강수위가 높고 건설력량이 적은 불리한 속에서도 목표한대로 수문기둥공사를 해당한 높이까지 다그칠 열의밑에 굴착기, 유압식삽차 등 설비들의 대수를 부쩍 늘이고 양수기가동률을 높이면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이 투쟁속에서 려단에서는 공사장에 큰물이 들이닥치기 전에 계획했던 대상의 공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월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희천4호발전소건설을 맡은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전투원들은 가물막이한 우안의 언제공사장에서 기초와 수문기둥타입을 힘있게 내밀면서 발전기실공사를 적극 추진시키였으며 함경남도려단의 전투원들은 발전기실공사를 최대한 다그칠 목표밑에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하부설비조립과 흡출로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어 각각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희천12호발전소의 발전기실건설을 맡은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 희천10호발전소건설을 맡은 철도성려단, 희천9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양시려단 전투원들도 공사조건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대상공사를 립체전의 방법으로 내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희천3호발전소건설을 맡은 자강도려단, 희천7호발전소건설을 맡은 건설건재공업성려단에서도 건설공사를 적극 내밀어 월계획을 완수하였다.

8월에 들어와서도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앞에 다진 맹세지켜 높이 내세운 올해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타는 열의안고 충천한 기세로 공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류기풍

전인민적사업-환경보호, 자연보호

◇ 올해에 들어와 각지에서 거리와 마을, 일터를 환하게 꾸리고 산천을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 사업에서 앞장서고있는 고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자기가 사는 고장을 보다 아름답게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은 우리자신을 위한 사업이므로 누구나 주인이 되여야 합니다.》, 《자연과 환경을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은 전인민적사업으로 전환될 때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다. 환경보호, 자연보호사업이 잘되고있는 고장들에 가면 례외없이 이 사업을 자기 집뜨락을 거두는 일처럼 여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수많은 주인들을 만날수 있다.

그렇다. 환경보호, 자연보호사업에서는 주인이 따로 없다. 이 땅에 살고있는 우리모두가 주인이다.

◇ 환경보호, 자연보호사업은 사회주의문명국가건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환경보호, 자연보호사업을 떠난 사람의 건강증진과 문화적인 생활조건이란 생각할수 없다. 아무리 먹을것이 많고 좋은 집이 있다고 해도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수 없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과제로 나선다.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자원을 보호증식시키며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책임적인 애국사업이 바로 환경보호, 자연보호사업이기때문이다.

환경보호, 자연보호사업은 나라의 전령토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방대한 이 사업은 해당 부문의 힘만으로는 원만히 해낼수 없으며 전체 인민이 주인이 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각종 피해로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조성되고있는 현실은 이 사업의 절박성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당의 구상을 받들고 우리가 사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꾸려 사회주의문명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앞에 나선 시대적요구이다.

◇ 온 나라에 환경보호, 자연보호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환경보호, 자연보호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서야 한다. 누구나 이 사업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당의 자연환경보호사상과 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영원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애국사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서야 한다.

모두가 이 사업에 주인된 립장에서 매끼 밥을 먹듯이 정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산림과 토지, 강하천, 호수, 바다, 대기 등 자연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에서 애국자의 량심을 가지고 네일, 내일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전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자연환경을 훌륭히 보호관리하기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환경보호, 자연보호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포장용기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단천마그네샤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년간 짐나르기계획 앞당겨 수행

신의주기관차대에서

신의주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이 년간 짐나르기계획을 지난 7월 27일까지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짐을 제때에 실어다주어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관차대에서는 기관차수리정비를 선행시키면서 실동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계획수행기간 이곳 수송전사들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작업반과 작업반, 기관사와 기관사호상간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기 위한 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렸다.

기관사들은 짐나르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자기 운전구간에서 표준운전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증송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기관차대에서는 기관사들모두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기관차수리정비에 필요한 공구들과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기관차수리기일을 앞당기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수리중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관차수리에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기관차수리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짐나르기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는 속에 내연기관차 103호작업반과 261호작업반이 년간계획을 남먼저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내연기관차 103호 책임기관사 리용남, 221호 책임기관사 변영길, 305호 책임기관사 오영찬동무를 비롯한 20여명의 기관사들도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년간 짐나르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수송전사들을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기관차대에서는 년간 짐나르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드높이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기관사들이 증송의 기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애국의 열정안고 전력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전진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석탄전선에 대고조진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와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지난 7월 30일까지 석탄공업성과 각지 중소탄광들에서 7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서부지구 대규모탄광들의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면서 모든 탄광들에서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각지 탄광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더 많은 탄밭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개소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을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순천, 덕천, 개천, 북창, 득장지구를 비롯한 서부지구의 탄광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매 굴진소대, 채탄중대들에 나가 탄부들과 일도 함께 하고 정치사업도 화선식으로 벌리면서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에서는 굴진력량을 계속 보강하면서 암질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발파방법과 선진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단계적으로 늘이였다. 령대탄광에서도 채탄장당 부하률과 운반능력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 날마다 석탄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으로 현행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 높은 석탄증산성과로 빛내여갈 일념안고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생산조건이 의연히 불리한 속에서도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완강하게 실천하면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었다. 지난 7월에도 모든 탄광들에서 월 석탄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함으로써 련합기업소적으로 2만여t의 석탄이 더 생산되여나오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하반년에 들어와서도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봉천, 조양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는 장마철생산준비를 면밀하게 갖춘데 토대하여 운반로선관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지난 시기보다 탄차들의 순환률을 훨씬 높임으로써 7월 석탄생산계획을 11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북창, 득장, 강동, 구장지구의 탄광들에서도 집단적혁신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쳤다.

북창지구의 남덕, 인포, 회안탄광들과 송남청년탄광, 득장지구의 득장청년탄광, 룡산, 명학탄광의 탄부들은 나라의 대동력기지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줄 불같은 열의안고 부족되는 설비, 자재들을 자체로 마련하고 전투장마다에서 교대가 따로 없는 힘찬 돌격전을 벌려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석탄을 더 생산하였다.

강동지구의 강동, 덕산, 령남탄광들과 구장지구 룡수탄광의 탄부들도 뜻깊은 올해 석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올 드높은 열의안고 갱막장마다에서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부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석탄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으며 강서, 전천, 삼신탄광을 비롯한 성아래 다른 탄광들에서도 지난 7월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각지 중소탄광들에서도 석탄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있다. 특히 화력탄보장을 맡은 덕천, 순천, 득장, 개천지구를 비롯한 서부지구의 중소탄광들이 증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덕천지구의 중소탄광들에서는 지난 7월 석탄생산계획을 2.9배이상, 순천지구 중소탄광들에서는 1.7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득장, 개천, 구장, 강동지구의 중소탄광들에서도 화력발전소들에 매일 많은 량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석탄탐사대들의 활동이 적극화되여 석탄생산을 믿음직하게 추동해나가고있다. 직동, 령대, 제남, 향원, 덕천, 회안석탄탐사대를 비롯한 각지 탐사대들에서는 현존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속있게 짜고들어 지난달에만도 수천m의 시추 및 탐탄굴진을 진행함으로써 100여만t의 석탄매장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덕천탄광기계공장, 순천탄광기계공장, 구장탄광기계공장, 은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 탄차와 전차차륜과 뽐프, 정대와 같은 탄광설비부속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는 속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탄차생산이 1.3배이상 늘어나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적극 북돋아주었다.

본사기자 류성국

《군중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대중적지반이며 우리 당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야 할 영원한 동행자입니다.》 김 정 은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혁명적당으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이 땅의 천만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위대한 창조와 혁신의 한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어머니모습에서 세계는 끝없는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가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승리의 보검으로 되여 세계 1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광범히 연구보급되고있다.

이렇듯 진보적인류는 대중적당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과시하며 위대한 승리만을 아로새겨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끝없이 부러워하고있으며 우리 당의 대중적당건설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그렇다.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존엄높은 혁명적당!

바로 여기에 남들이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의사실현의 대표자로서 대중속에 뿌리박는것은 그 존재의 필수적조건이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 첫 시기부터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당에서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에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신 바로 여기에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의 위대성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그들의 의견을 허심히 듣고 모든 사업을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진행해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전당이 군중속으로!

이것은 우리 당을 령도하신 전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간직하시고 구현하여오신 드팀없는 신조였다.

이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느 분야의 로선과 정책이든지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제시하시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언제나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해오신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전하는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창건 30돐을 맞으며 진행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문건에 반영된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일군에게 이 계획을 가지고 대중과 토론해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사업계획을 몇몇 일군들이 모여앉아 작성한것이다보니 일군은 아무 말씀도 올릴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이 잘된것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우리 나라 농촌들에서 벼가 익어갈무렵에 벼이삭들이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적이 있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업부문 지도일군들과 과학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명하여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그 원인을 똑바로 밝히지 못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께서 직접 머나먼 농촌길을 걷고걸으시며 농업과학자도 만나시고 협동농장의 기술일군, 작업반장, 분조장, 물관리공들과도 담화하시였다.

그 과정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시였다.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벼가 넘어진 곳은 신통히도 질소비료를 너무 많이 친 논배미들이라는것이였다.

결국 벼가 넘어지는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세운 이 계획을 가지고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의 의향이 곧 우리 당과 혁명의 요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수십성상에 걸치는 우리 장군님의 당령도사에 새겨진 하나의 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그대로 사상이 되고 로선이 되며 정책이 된다는 우리 장군님의 정치신조는 그대로 우리 당의 지침으로 되였고 우리 일군들이 지켜야 할 준칙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정연한 체계에 의하여 우리 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대중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혈연적관계를 공고히 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인민대중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책들과 로선들을 제시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시기 위해 바치신 심혈과 로고에 대해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느때 어디를 가나 거기에서 당일군들을 만날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되면 언제나 당의 목소리가 군중속에서 울리고 군중이 당의 숨결을 따라 숨쉴수 있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일군들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분,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그대로 정책에 담도록 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토록 세심하고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요구가 그대로 담겨진 로선과 정책만을 제시할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뢰심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정녕 오늘 우리 조국에 마련된 자랑찬 결실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대중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낡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당사업에서는 보다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가는 길에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정 순 학

향기롭운 꽃에 벌들이 모여들듯이

참으로 가슴벅찬 영광의 날과 달들이 흘러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우리 당의 어머니당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뚜렷이 부각된 잊지 못할 나날들, 이 기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품이야말로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끝까지 한품에 안아 세월의 눈비도 바람도 다 막아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이라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라는 인상깊은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포비서들입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모든 세포비서들이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한가정의 어머니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조선로동당을 인민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되게 하시려 우리 원수님께서 새겨가시는 그 모든 헌신의 자욱자욱들을 걸음걸음 목격하면서 우리 천만군민은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있으며 어떤 거대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것,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숭고한 관점이고 립장이며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시려는 그이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이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당을 천만자식의 운명을 책임진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세포비서들은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며 어머니다운 정겨운 시선과 밝은 인상, 례절바른 언행으로 사람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향기로운 꽃에 벌들이 모여들듯이 세포비서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집단안에 화목한 분위기가 차넘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향기로운 꽃에 벌들이 모여들듯이!

바로 이 모습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복무정신으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우리 당의 불패의 향도력과 전투력의 일단이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당사업방법의 묘술도 가르쳐주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업방법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을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입니다.》

주체58(1969)년 4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그들에게 한가지 수수께끼를 내시였다.

그 수수께끼는 태여난지 몇달밖에 안되는 어린애가 자꾸 우는데 왜 울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일군들은 저저마다 위대한 장군님께 어린애가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파서 우는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아니라고, 어린애는 건강하다고, 그리고 방금 젖을 먹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어린애가 졸음이 와서 우는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애는 실컷 자고 방금 깨여난 어린애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기저귀가 척척해져서 그것을 갈아달라고 우는것이라고 그들의 생각을 튕겨주시였다. 순간 장내에는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수수께끼를 풀다가 웃었지만 사실은 그저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머니는 아이가 울면 그가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파서 우는가, 그렇지 않으면 졸음이 오거나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가 하는것을 가려보고 그에 맞게 젖을 먹이거나 치료를 해주며 잠을 재우거나 기저귀를 갈아준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어떤 당일군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아파하는지도 모르면서 주먹치기로 일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자면 그들의 마음을 환히 꿰들고 말 한마디를 하여도 그에 맞게 하여야 한다. …

그이의 뜻깊은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파고들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은 바로 그 마음속에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하나의 수수께끼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론,

그것은 우리 당일군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또 하나의 심오한 원리를 담은 귀중한 당사업방법의 묘술이였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어머니당, 그 이름과 더불어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늘 군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라는것은 일군들에게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이다.

주체83(1994)년 7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할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관철하자면 우리 일군들이 군중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늘 말하지만 일군들은 인민을 선생으로 여기고 인민대중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과 함께 흘러온 자신의 한생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 …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기에 이렇듯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우리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데 대한 귀중한 유훈을 남기신것 아니랴.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처럼

언제인가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몸소 료해하신 인민생활실태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들은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있으며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자면 진정으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이 이러한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지니고 언제나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다면 인민생활에서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이날의 가르치심에는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 때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병사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어느해 전승절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회관에서 군인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전승절경축공연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관람하시였다.

뜻깊은 전승절에 부대를 찾아주신것만도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인데 친히 공훈국가합창단의 노래선물까지 안고오시였으니 부대안의 전체 장병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전사들사이에 열화같은 사랑과 정이 이어지는 감동깊은 화폭이 장내에 펼쳐지는 가운데 공연이 진행되였다.

전시가요를 비롯한 여러 합창종목들이 끝나고 다음곡목으로 《내가 지켜선 조국》의 은은한 선률이 울려퍼지기 시작하였다.

한없이 귀중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총친 병사의 자각을 더더욱 심장깊이 새겨주는 노래선률은 군인들의 심금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노래가 끝났지만 다시 듣고싶은 간절한 마음을 안은 군인들은 무대를 지켜보았다.

그때 그들의 심정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내가 지켜선 조국》의 은은한 노래선률이 다시 울려나오는것이였다.

순간 군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공연이라는것도 잊은채 일시에 환성을 올리였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우리 장군님께서 노래를 다시 부르도록 해주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였다.

오늘은 전승절이여서 그런지 우리 병사들의 얼굴이 더욱 보고싶다고 하시며 전선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평원군 산림경영소 양묘직장을 돌아보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과 평원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을 돌아보았다.

김영남동지는 양묘장들을 돌아보면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높이 받들고 경제적리용가치가 큰 나무모들을 자래우고있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중앙과 지방의 양묘장들을 잘 꾸리며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잘 알고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워 산림조성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의 풀한포기, 나무한그루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돌아보았다.

물고기만 꽝꽝 잡으라고 당부하시며

못 잊을 사연안고 사회주의바다향기 풍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수산부문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 사회주의향기속에는 사회주의바다향기도 있어 인민의 마음은 끝없는 감동에 젖는다.

우리 인민이 신심에 넘쳐 그려보는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와 불멸의 헌신에 의하여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온 나라에 물고기풍년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사색과 심혈은 그 얼마인가.

8월25일수산사업소에 현대적인 고기배들을 보내주시고 이 사업소에 찾아오시여 새기신 인민사랑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고있다.

사업소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해주자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물고기잡이에 필요한 어구보장과 수리정비는 자신께서 맡겠다고, 병사들을 잘 먹이는 일인데 적극 도와주겠다고, 그저 물고기만 꽝꽝 잡으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일군들은 선군령도의 바쁘신 속에서 이 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다는 모르고있었다.

사업소의 종업원들로부터 6개월동안에 4 000여t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편지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이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에야 그이의 높은 뜻을 다소나마 새겨안게 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물고기들이 빼곡이 들어찬 절임창고와 랭동저장실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의 경험은 우리 나라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는것을 실증해준다고, 인민들과 군인들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 어디서나 희한한 물고기풍년을 안아올수 있다고 기쁨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한겨울의 맵짠 바다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킬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몸소 나라의 수산자원실태를 확인하시고 수산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같으신 인민의 어버이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그것은 정녕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숭고한 화폭이였다.

과학적인 예견과 비범한 실천으로 우리 나라 바다에 수산자원이 많다는것을 확증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물고기대풍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바치시는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였던가.

고기배와 어구들을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를 하며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한 귀중한 지침들을 주시고 그 앞장에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을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고 회의참가자들과 함께 당기가 펄펄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하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그 은정은 온 나라에 수산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인민군대의 모든 수산부문들에서 언제나 선창에 물고기가 넘쳐나게 하고 포구마다에서는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진정에 온 나라의 수산부문이 화답하여나섰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전국의 본보기, 표본으로 될수 있는 희한한 수산기지를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그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단풍》호고기배들이 만선기를 휘날리며 포구로 돌아오고 양식공처녀들이 풍요한 작황을 이룬 미역과 다시마를 수확하며 희열과 랑만의 노래를 부르고있는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정과 열을 다 바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심장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시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오늘도 좋지만 더욱 좋을 휘황한 래일에 대하여 굳게 믿고있다.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해마다 강산이 변모되고 생활이 좋아지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와 은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일떠섰는가. 사회주의문명과 사회주의부귀영화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심은 얼마나 백배해졌으며 우리 인민의 기쁨과 랑만의 웃음소리는 또 얼마나 높이 울려퍼졌던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생활속에 흘러드는 사회주의향기,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과 열에 실려오는 향기이다.

위대한 사상과 령도로 인민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행복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이 땅의 곳곳에서는 만풍년의 향기, 바다향기를 비롯한 사회주의향기가 흘러넘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정 선 철

기쁨속에 부르신 《바다의 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생활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이악하게 노력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해줄수 있습니다.》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약동하던 주체70(1981)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고기잡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수산부문의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바다에 나갔다들어온 그 일군은 동해바다에 많은 명태떼가 밀려들어 잡는다기보다 막 퍼내는것 같다는 사실과 어로공들과 함께 신이 나서 그물을 당기던 일들에 대하여 생동하게 말씀드렸다.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본때로 명태를 잡으면 우리의 모든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푸짐히 먹일수 있다고 더없이 기뻐하시였다.

이어 애로되는것은 없는가고 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름은 걱정말고 동무말대로 푹푹 퍼내라고, 나는 이런 때, 이런 날이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명태잡이배의 기름을 제때에 보장하고 물고기수송을 빈틈없이 하기 위한 대책들을 즉시에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만족하신 어조로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하고 그다음엔 뭐더라, 거 왜 《바다의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소, 그래, 그래, 배전에 넘치지라고 하시며 만사를 잊으신듯 노래를 부르시는것이였다.

불면불휴의 사색과 헌신으로 물고기대풍을 안아오시고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푸짐히 먹이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바다의 노래》를 부르시는 어버이수령님,

전화기에서 울려나오는 위대한 수령님의 기쁨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일군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가 떠올라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전력증산으로 끓어번지는 대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나라의 대규모전력생산기지인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가 전력증산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올해 첫 전투부터 큰걸음을 내디딘 북창의 전력생산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줄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그 어느 일터에서나 전력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북창의 로동계급은 전력증산의 불바람을 일으켜 뜻깊은 올해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훨씬 많은 전력을 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북창의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력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전력생산자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나라의 생명선인 북창이 끓어야 온 나라가 끓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릴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올해전력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및 행정경제일군들은 전력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로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창의창발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최대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전력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현장에 나간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발전기의 가동대수와 운영실태, 석탄공급계통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을 손금보듯이 장악하고 참모부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생산조직과 지휘를 기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련합기업소에서는 지금의 일기조건에 맞게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전력증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온 북창이 창조와 혁신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일찌기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는 나라의 생명선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북창이 끓어야 온 나라가 활기를 띤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소중히 새겨안은 북창의 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전력증산을 위한 투쟁은 운영직장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청년직장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잘하여 발전설비마다 만부하를 걸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늘일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교대점검, 업간점검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청년직장만이 아닌 련합기업소의 다른 직장들에서도 전력증산투쟁에 떨쳐나선 로동자, 기술자들의 억센 숨결을 후덥게 느낄수 있다.

2, 3, 4직장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보이라, 타빈, 발전기를 맡은 담당기사들이 협동작전을 잘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운전공, 조작공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운전조작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전력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운탄직장, 하차직장의 로동자들은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기계삽, 급탄기, 벨트콘베아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전력생산을 믿음직하게 보장해나가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석탄부림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력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전기보수직장, 운영보수직장의 로동자들은 전력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데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발전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보장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자력갱생직장, 소재직장, 주강직장, 제관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발전설비들의 운영과 보수에 필요한 부속품,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북창의 로동계급,

더 높은 생산성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나가려는 련합기업소 전력생산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북창은 전력증산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할 때

성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창조되며 력사가 전진하고 혁명이 추동된다.》

최근년간 성천군이 소문없이 일을 많이 하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당에서 가르쳐준대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있는 군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 *

몇해전 군에서는 읍지구에 살림집을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단번에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문제는 결코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였다.

일부 일군들은 군의 형편에서 건설자재를 해결하는것은 간단치 않으므로 단번에 수백세대가 아니라 수십세대씩 단계별로 건설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있는 군당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물론 자재문제가 어려운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살림집건설을 대하는 일부 일군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심한 군당책임비서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살림집건설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살림집건설을 내밀기로 하였다.

군의 일군들의 확고한 결심과 빈틈없는 작전밑에 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건설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졌고 건설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군의 책임일군들이 자주 현장에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힘을 넣었다. 그 나날에 군안의 주민들속에서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제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신심이 굳세여졌다.

살림집건설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그 기세로 군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는 교양마당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2㎞에 달하는 군소재지도로를 번듯하게 닦아놓았다. 소재지의 거리와 마을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일신시키는데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은 올해 비류강호안공사장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호안공사는 규모는 물론 작업량에 있어서 실로 방대하였다. 그러나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군중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호안공사를 해제끼기로 결심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고명철, 로성철, 김룡호동무를 비롯한 능력있는 일군들을 공사장에 내보내여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결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 불과 6개월동안에 호안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할 때에도 그러하였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군에서는 소재지가까이에 1만㎡의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남새온실농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 온실건설을 빠른 시일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성천군 일군들의 사업은 당정책대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할 때 자체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신념의 강자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함주군 추상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

금진강흥봉청년발전소저수지에서 추상저수지까지 수천m의 물길굴을 뚫고 백수십m의 락차고를 얻어 전기를 생산하는 추상1호발전소건설이 완공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추상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수천m에 달하는 물길굴공사가 완공되고 추상1호발전소 설비조립이 마감단계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발전소건설을 완전히 끝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있는 함주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돌격대원들의 투쟁은 참으로 자랑스럽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국토건설을 한가지 하여도 10년, 50년, 100년 이렇게 먼 앞날을 내다보며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군에서 자체로 건설한 금진강흥봉청년발전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하다고, 아주 훌륭하다고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돌격대원들을 진주보석과 같은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추상지구의 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안고 군의 책임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추상계단식발전소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줄기차게 내밀었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 군자체의 힘으로 방대한 물길굴공사를 해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신념을 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건설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나갔다.

사갱뚫기와 맞굴뚫기, 붕락된 구간복구전투, 도갱판통, 굴확장공사와 콩크리트치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던 물길굴공사의 나날 돌격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진주보석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가슴에 새겨안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군자체의 힘으로 발전소건설을 끝까지 해내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인민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압축기와 착암기, 정대와 정머리, 화공품, 세멘트와 철강재를 비롯한 많은 설비와 방대한 자재를 보장하기 위해 일군들은 잠도 휴식도 잊고 련관단위들을 찾아 수백리길을 뛰여다니였다.

흥봉저수지 취수구와 물길굴을 련결하는 그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지난해부터 군에서는 굴과 굴을 련결하는 압력관설치공사, 갱안과 갱밖의 철관로설치공사, 추상1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를 해제끼고 지금은 발전설비조립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근 20년간 발전소건설장에서 일해온 군중소형발전소운영 및 건설사업소 지배인 장봉일동무는 건설자들모두의 심정을 담아 말하였다.

《발전소건설을 통해 우리 군사람들은 모두가 불가능을 모르는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렇다.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신념의 강자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이들의 투쟁과정이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열흘에 할 일을 사흘동안에

청진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청진철도국 책임일군의 방에서는 일군들의 긴급협의회가 열렸다.

청진항에 도착한 영농물자를 도안의 시, 군들에 수송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수송해야 할 물동량은 1만여t, 게다가 영농물자수송은 시간을 다투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협의회장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결코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였다. 사방 널려있는 예비화차들을 끌어들이고 수송조직을 다시 하자면 시간이 걸려야 하였던것이다.

그때 국책임일군의 목소리가 협의회장에 울렸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키는 일인데 이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빨리 수송조직을 짜고듭시다.》

그것은 그만이 아닌 협의회참가자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사실 긴급히 제기된 영농물자수송이여서 계획외 시급히 수송조직을 한다는것은 결코 헐치 않았다. 하지만 일군들은 영농물자수송보다 더 긴장한 일은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호응해나섰다.

협의회에서는 영농물자들을 빠른 시일에 시, 군들에 수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공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날밤중으로 국안의 당, 행정일군들이 떨쳐나서고 종업원들이 동원되였다.

책임일군들은 청진항으로 달려가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도안의 여러곳에 널려있는 예비화차들을 끌어오고 불량화차들을 수리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일군들이 기관차에 올라 기관사들을 고무해주며 그들과 함께 물동량을 수송하였다. 수송지휘일군들은 작전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렬차편성에서도 시간을 앞당길수 있게 하였다. 농업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기관사들은 보통때보다 1.5배에 달하는 화차를 끌면서도 성차지 않았다.

이렇게 청진철도국의 수송전사들은 보통때같으면 열흘은 실히 걸려야 한다고 하던 1만여t의 영농물자수송을 사흘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축산기계들을 하루빨리 세포등판으로

남시축산기계공장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업성아래 남시축산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세포등판에 보내줄 축산기계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힘찬 돌격전을 벌려 지난해에 수십대의 물절임절단기를 생산하여 세포등판에 보내준데 이어 올해에 들어와 150여대의 먹이분쇄기와 10여대의 소형절단기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완강한 실천력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손병호, 리춘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프레스형타지구와 여러가지 조립지구들을 보충갱신하면서 로력과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워 축산기계생산에서 련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생산의 선행공정인 주물작업반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곳 로동자들은 주물품생산에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석탄과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1.5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주물품생산계획을 매일 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프레스공들은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 완성한 새 지구를 생산에 받아들여 축산기계생산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가공작업반, 조립작업반에서는 작업반원들의 기술기능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 생산공정별에 따르는 작업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맡겨진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공무작업반원들은 부속품과 지구, 장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세포등판에 보내줄 축산기계생산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생산자들속에서 발현되는 긍정적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는것과 함께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요구되는 기계설비들을 기한전에 보내주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생산성과는 날로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천수만에 달하는 사상일군들만 잘 준비되여있어도 강력한 정예군단들을 편성할수 있으며 이 력량이면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된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강연선전활동으로 대중을 고무추동하고있는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들을 소개한다.

평안남도당학교 과학교수방법연구부 지도교원 권동진동무

《들을 소리가 있는 강연》, 《기다려지는 강연》, 이것은 평안남도당학교 과학교수방법연구부 지도교원 권동진동무의 강연을 듣고난 대중의 평이다.

도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인 권동진동무의 강연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강연준비이자 실효성의 높이이라는 관점에서 사전준비에 품을 넣고있는것이다.

그는 그 어떤 주제의 강연이건 제강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한가지라도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 말로 한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다시한번 농업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올해농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는 강연제강을 받았을 때였다.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는것이 알곡증산과 관련한 중요한 열쇠의 하나이라는것을 포착한 그는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지난해 이 사업을 잘하여 그 덕을 본 숙천군 운정농장에 자전거를 타고나갔다. 관리위원장을 만난 그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해 세운 세칙과 그에 대한 농업근로자들의 반영, 서로 다른 직종에 따르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인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 자료면 당장이라도 강연을 할수 있었지만 그는 백암농장이 지난해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그 농장에 나갔다. 제 눈으로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확증한 다음 그는 출연제강을 만들고 강연에 출연하였다. 이렇게 그는 도안의 12개의 시, 군들에 나가 앞선 단위의 경험을 알려주면서 실천과 결부된 집중강연선전활동을 벌려나감으로써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정책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그는 강연을 연락에서만 하지 않았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이 곧 그의 강연장소였다.

두해전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 1만 5 000t의 세멘트증산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그는 즉시에 현장에 내려왔다.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소성로대보수전투현장에서 20일동안이나 로동자들과 꼭같이 일하고 휴식참에는 강연선전활동을 벌려나감으로써 당에서 제시해준 세멘트증산목표를 제기일안에 수행하게 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기여하였다. 부교수인 그는 과학연구사업과 교수사업을 지도하면서 7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으며 위대성도서들도 집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강연준비이자 실효성의 높이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강연이 구수하고 통속적이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떠미는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한 비결중의 비결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손영희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겸 종합과장 박창룡동무

(어떻게 하면 강연의 실효를 최대로 높일수 있을가.)

박창룡동무의 사색은 늘 이렇게 불타고있다.

올해 2월에도 그랬다.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올해에 기어이 알곡대풍을 안아오자는 내용의 강연에 앞서 그는 날이 밝도록 강연제강을 연구하였다.

이튿날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 나간 그는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선전활동을 진행하였다.

—사람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건강해지듯이 알곡작물도 마찬가지이다. 흙보산비료를 준것만큼 곡식이 실해지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런 내용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서 그는 흙보산비료의 덕을 크게 입고있는 단위들의 앞선 경험을 농장의 실정과 결부하여 구수하게 들려주었다. 실효는 대단히 컸다.

농장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질좋은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냈다.

이렇듯 박창룡동무는 한번의 강연을 해도 론리정연하고 설득력있게 진행하고있다.

박창룡동무는 무서운 정열가이기도 하다.

법동군, 판교군, 금강군의 두메산골과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고성군의 분계연선마을들, 원산청년발전소건설장, 갱막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주요전투장들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란 없다. 강연시간보장을 위해 년로한 몸으로 원산시에서 천내군까지의 먼길을 달려간적도 있다.

그는 지금까지 연 백수십만명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천회의 강연선전활동을 벌리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강연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그는 수십년동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자료와 당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자료와 상식자료 1만 수천건을 만들어 강연선전활동에 리용하였다.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의 영예를 지닌 그는 지금 대고조전투장들에 과감히 뛰여들어 청춘시절의 그 열정, 그 기백으로 강연선전활동을 벌리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경서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진행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가 1일부터 8일까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와 전국경공업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국의 공장, 기업소, 가내작업반, 리용생산반들에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만든 세소상품, 일용잡화, 식료품 등 1 500여종에 12만 4 000여점의 소비품이 출품되였다.

피복류, 신발류, 갖가지 놀이감을 비롯한 다양한 품종들이 출품된 전시회는 처음부터 참관자들의 관심을 높여주었다.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북도내 여러 단위의 생산자들이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게 만든 초물제품, 가정용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옷, 휴대용비옷, 가방류를 비롯하여 평양시에서 출품한 제품들과 함경북도와 남포시에서 내놓은 수영복들은 쓸모있고 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기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토의사업과 경험토론회가 있었으며 상품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심화발전시켜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는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과학기술중시의 거세찬 열풍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장을 돌아보고

발명창조를 적극 추동한 의의깊은 계기

발명총국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3대혁명전시관 새 기술혁신관에서는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우리는 얼마전 발명총국 일군들을 만나 이번 전람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이번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로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전국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총국장 교수 박사 강규철: 그렇다.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단위들의 많은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발명가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는 지난 시기의 전람회들과는 달리 새로운 양상을 띠고 진행되였다.

우선 출품건수가 많았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를 비롯한 직할시들과 각 도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2 600여건의 발명 및 새 기술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는데 이것은 2012년에 열린 지난번 전람회에 비하여 두배가 훨씬 넘는 건수이다. 특히 교육위원회, 국가과학원, 보건성, 의학과학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현장련합지휘부를 비롯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단위들에서 많이 출품하였다.

올해에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리 발명총국에서는 이번 전람회가 과학기술의 보급과 교류, 류통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래서 앞서 진행된 전람회이후 2년동안에 발명, 특허를 받았거나 국가과학기술성과로 등록된 새 기술만을 출품하도록 하여온 지난 시기의 전람회들과는 달리 비록 오래전에 나온 자그마한 공장창의고안이라고 해도 수요가 있다고 보는 기술이면 다 출품하도록 참가대상의 폭을 넓히였다.

결과 전람회참가단위들이 늘어나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대학생, 군인, 로동자, 농민, 3대혁명소조원, 일군들은 물론 전람회조직력사상 처음으로 10대의 나어린 학생들까지 참가하였다.

처장 류철호: 이번 전람회에 대한 사회적관심도 매우 높아져 참관자들이 늘어나고 지적제품들에 대한 교류와 류통분위기도 아주 좋았다.

전람회가 진행된 기간은 삼복철이였지만 참관자수는 지난번 전람회에 비하여 매일 평균 2배나 되였다. 그속에서 출품자들은 발명하고 돌아서면 새것이 또 나오는 오늘의 시대에 자기가 창조한 발명이나 새 기술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가, 다시말하여 얼마만 한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가를 스스로가 평가받았으며 수요가 없거나 적은 기술을 생명력을 가진 기술로 갱신하거나 새로 창조하기 위한 결심도 다지고 다른 단위들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며 그 방도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번 전람회는 출품자들이 자기의 발명과 특허, 창의고안, 새 기술의 생명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계기로, 기술의 개발자가 그 수요자를 찾기 위한 경쟁마당으로 되였다.

이 과정에 전람회에서는 출품된 2 600여건의 제안들가운데서 10건이 금메달(1부류)로 가장 높이 평가되였으며 100여건이 금메달(2부류)로 평가되였다.

단체별순위에서는 국가과학원과 교육위원회, 농업성, 기계공업성, 유원지총국, 평양가금지도국, 출판지도국, 평양시과학기술위원회가 1등을 쟁취하였다.

기자: 이번 전람회기간에 기술강의와 과학기술발표도 수많은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관심속에 매우 활기있게 진행되였다고 본다.

과장 박영신: 그렇다.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의 《카바이드전기로의 전극조종을 위한 유압장치》,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기마당에 의한 초고전력전기로 수압조종계통용수의 처리》를 비롯하여 여러건에 대한 기술강의와 과학기술발표가 진행되였다. 그가운데서도 김일성종합대학의 《생물률동시간변경안경》과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의 《현장모선형고성능CNC장치》, 유원지총국의 《잔디용영양액》, 함경남도과학기술위원회의 《극초저락차저속발전기》에 대한 기술강의와 과학기술발표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는데 특히 생물률동시간변경안경과 관련한 강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두번이나 진행되였다.

기자: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속에서 이번 전람회와 같은 과학기술보급과 교류, 류통계기가 더 자주 마련되였으면 좋겠다는 반향도 제기되였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날로 높아지는 사회적열기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고 생각한다.

과장 김영남: 이번 전람회에 대한 여러 부문 일군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매 단위들에서의 발명과 새 기술창조성과도 결국은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이번 전람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단체나 단위들을 보면 례외없이 과학기술에 대한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의 열의가 높고 관심이 정말 크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현장련합지휘부, 은률광산, 문덕수산사업소, 문수궤도전차사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책임일군들과 같이 이번 전람회에 자기가 직접 출품한 일군들도 많고 정보산업지도국, 만수대창작사, 인민봉사총국과 천리마타일공장, 릉라곱등어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는 책임일군들이 현지에 나와 전시대준비부터 깊이 료해하고 관심을 돌림으로써 전람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총국장 강규철: 우리 발명총국에서는 이번 전람회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잘 살려 전람회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함으로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철두철미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도록 해나가겠다.

기자: 발명총국 일군들의 혁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일본새, 우리 인민들의 날로 높아지는 관심과 기대속에 과학기술의 보급과 교류, 류통이 보다 활발하게 벌어지게 될 다음번 전람회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려명희

《짧은 기간에 많은것을 보고 배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 대한 각계의 반향도 좋았다.

박영진 대성지도국 국장은 70여명의 산하단위 책임일군들과 함께 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며 과학기술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고있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정말 장하다, 출품된 발명과 특허, 새 기술, 창의고안들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산하단위 일군들이 경직된 사고방식과 낡은 틀거리에 매달리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산과 무역활동을 과학기술적으로, 첨단기술에 토대하여 진행하며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에 더욱 큰 힘을 넣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곽일룡 룡해운성 부상은 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인민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제안들 특히 성에서 풀어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제안들이 여러 전시대들에 전시되였으며 그 기술적수준도 상당히 높다는것을 느끼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휴대용용접기들과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에서 내놓은 현장모선형고성능CNC장치는 성에서 제기되는 현대화사업과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로서 시급히 받아들여야 할 제안들이라고, 성에서 이번 전람회에 출품된 전시품들에 대한 료해를 깊이하고 더 많은 기술자들을 참관시켜 가치있는 기술들이 현장에 적극 도입되게 하며 그 성능도 보다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리원철 김책공업종합대학 부총장은 이번 전람회가 지난번 전람회에 비하여 참관자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면서 이것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우리 당의 구상을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있으며 전람회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전람회장에서 지적제품들에 대한 류통을 활발하게 할수 있으므로 새 기술의 보급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이고 신속성이 보장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인민경제적으로 의의가 크고 나라의 경제를 일떠세우는데서 큰 역할을 한 제안들을 더 많이 전시하면 보다 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올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허봉일 금속공업성 부상은 이번 전람회가 전례없이 큰 규모에서 훌륭하게 조직되였다고 하면서 특히 성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짧은 시간동안에 많이 배울수 있는것이 제일 좋은 점이라고 말하였다.

류경수 금속공업성 국장은 전시품들의 수가 아주 많고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거리는것이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성에서는 정무원들뿐아니라 산하의 여러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전람회를 참관하도록 하였다, 전람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와보지 못하는것이 아쉽게 생각된다, 앞으로 성에서 전람회와 관련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함흥학생소년회관 지도교원 한세욱동무는 회관의 정보기술소조원들을 데리고 이번 전람회에 참가하였는데 10대의 나어린 학생들이 전국적인 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 참가한것은 전람회조직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정말 신심이 생긴다, 전람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면모에 대하여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능력있는 정보기술전문가가 될 결심도 더욱 굳히였다, 소조를 더 잘 운영하여 학생들을 훌륭히 키우겠다고 말하였다.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것을 보고 많이 배웠다.

이것이 이번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견해이다.

본사기자

진취적인 일본새가 안아온 열매

여러 전시대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수많은 참관자들로 흥성이는 전람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발명총국의 일군인 손철동무는 많은 단위의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관심속에 과학자, 기술자들이 좋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근방에서 사람들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직로에서 고강도세멘트를 정말 생산할수 있습니까?》

《여기서 해결한 과학기술적내용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참관자들이 연방 질문을 들이대는 곳은 어느 한 세멘트공장의 전시대였다.

이곳 기사장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세멘트생산과 품질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하려는 크나큰 포부와 열의를 안고 대형수직로에 의한 세멘트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리고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세기가 높은 고강도세멘트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종래의 수직로에서 생산한 세멘트가 회전로에서 생산한 세멘트보다 세기와 질이 떨어지는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던 종전의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타파한 이 공장의 경험은 많은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대수직로의 기술지표로 되고있는 10여가지 항목에 대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알심있게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언제나 앞장에서 이끌어온 책임일군들의 피타는 노력이 있어 공장이 짧은 기간에 완벽한 생산체계를 갖추었다는 해설자의 말에 참관자들은 귀를 강구었다.

이들의 경험을 배우려는 적극적인 열의로 하여 참관자들은 좀처럼 자리를 뜰줄 몰랐다.

인상깊은 전시대를 떠나 우리의 발길이 닿은 곳은 평양생물기술개발소전시대였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가치있는 제안들을 내놓은것으로 하여 특별히 참관자들이 많이 모인것 같았다.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참관자들은 전시대에 전시된 부유제형종자피복제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있었다. 해설자의 말에 의하면 새로 개발한 종자피복제는 분산안정성이 매우 높고 환경피해가 전혀 없으며 살충, 살균 및 생육촉진효과가 뚜렷하다고 한다. 또한 콩크리트의 실판을 따라 침투하여 구조자체를 방수하여 방수층의 로화나 피로에 의한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삼투결정형방수재도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대한 질문도 그칠줄 몰랐다.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상건설들에 도입되였다는 해설자의 말은 참관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아냈다. 이밖에도 이곳의 과학자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지적제품들도 참관자들의 인기를 모았다. 해설자는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은 모두 젊은 과학자들이다, 이들이 이렇게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거두게 된것은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와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토안료에 의한 천연외장 및 내장재를 출품한 청진스레트공장의 최영민, 중소규모의 생산량을 가지는 카리비료 및 카리규소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공정을 확립한 옥류관의 손정삼동무도 자기 단위 일군들의 관심속에 오늘과 같은 알찬 열매를 거둘수 있게 되였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이렇듯 어느 전시대에서나 해당 단위의 일군들의 적극적인 사업기풍, 일본새를 떠나 훌륭한 연구성과를 생각할수 없다는 전람회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들이 울려나와 참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뿐만아니라 이번 전람회에 참가하고보니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는 철리를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는 일군들도 많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관철의 선구자가 될 때 어디서나 비약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게 된다는 시대의 메아리를 다시금 뜻깊게 새기며 우리는 전람회장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경철

◁ 우수하게 평가된 제안들과 발명가들 ▷

이번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는 평원군농기계작업소의 이동식벼동력탈곡기,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1 000㎾ 열뽐프 그리고 갱질반응가스로부터 액화가스분리 및 생산방법, 반응정류에 의한 휘발유첨가제의 합성방법을 비롯한 10건이 금메달(1부류)로 가장 높이 평가되였다.

압축공기에 의한 눈차단막형성기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서명혁동무가 연구제작한 압축공기에 의한 눈차단막형성기는 겨울철의 불리한 자연기후조건과 환경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설비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사, 제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누가 알아주건 말건 어려운 탐구의 길을 여러해동안이나 스스로 꿋꿋이 걸으며 발명가가 내놓은 이 제안은 수많은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발명창조의 나날 발명가는 압축공기에 의한 눈차단막형성기를 착상하고 단위시간당 최대로 기록된 많은 량의 눈도 능히 날려보낼수 있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생물률동시간변경안경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연구사 박사 서광혁동무가 내놓은 생물률동시간변경안경은 이번 전람회기간 수많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우리 식으로 설계제작한 이 안경은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사람의 눈에 직접 록색빛을 쪼이는 방법으로 인체의 생물시계를 조종하여 혼란된 생물리듬을 회복시키거나 요구하는 생활주기에 맞게 생물률동을 변화시키는데 쓰이는 휴대용빛조임장치이다.

불면증환자들에게 이 안경을 적용한 결과 3~7일만에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근적외선스펙트르분석기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분석기구연구소 소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리준기동무가 내놓은 근적외선스펙트르분석기는 의약품과 식료품 그리고 집짐승먹이와 연유 등에 포함되여있는 각종 유기질성분을 시약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매우 짧은 시간동안에 높은 정확도로 분석할수 있는 설비이다.

발명가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이 분석기를 두단오리공장에서 집짐승먹이의 영양성분을 분석하는데 도입함으로써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추가외력작용에 의한 강철트라스보강방법

평양건축종합대학 공학과학연구원 부원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송영일동무가 내놓았다.

발명가는 반대방향의 바깥힘을 추가하면 구조의 내력이 령에 가까와지게 된다는 기술공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이 기술을 발명하였다. 종전의 방법에 비해 추가적인 지점부의 설치, 예비응력을 조성하는데 쓰는 쇠바줄과 설비가 필요없는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다.

이 기술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어느 한 산업건물의 강철트라스를 보강하는데 도입되여 수많은 자재와 자금,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예정보다 절반으로 단축할수 있게 하였다.

굳은 암석시추용 금강석포화추환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실장 박사 김병호동무가 내놓은 제안이다.

발명가는 연구소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구집단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제작된 추환을 리용하는 시추공정을 확립하였다. 이 금강석포화추환은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온 값비싼 추환들에 비하여 시추속도가 1.1~1.2배 빠르고 수명도 1.1~1.3배이상으로서 그 성능이 세계선진수준에 도달하였다. 이 발명으로 금강석포화추환의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전자주사초음파진단기

평양의료기구기술사 실장 정명호동무가 내놓은 전자주사초음파진단기에 대한 참관자들의 관심도 컸다.

발명가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초음파진단기에서 핵심부인 전자주사초음파탐촉자를 세계적추세에 맞게 연구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값비싼 수입설비를 대신할수 있는 필수적인 의료설비로서 여러 병원들에 도입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서명혁동무

서광혁동무

리준기동무

송영일동무

김병호동무

정명호동무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접견

쯔엉 떤 쌍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7일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쯔엉 떤 쌍 주석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쯔엉 떤 쌍 주석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 나라의 관계가 깊은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선대수령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쌍무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웰남당과 국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말하였다.

반미구국항전을 비롯한 어려운 시기에 조선의 당과 정부가 웰남인민에게 보내준 물심량면의 지원을 웰남의 당과 정부는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거두고있는 조선인민의 성과에 대하여 감탄한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의 통일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외세의 간섭이 없이 해결되여야 한다는것은 웰남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이라고 확언하였다. 그는 다음해 외교관계설정 65돐을 계기로 정치,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는 주석부 판공실 부주임, 관계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상임비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레 홍 아잉 비서국 상임비서가 7일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이 참가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웬 푸 쫑 총비서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비서국 상임비서에게 정중히 전하였다.

비서국 상임비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총비서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웰남과 조선관계는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마련된 전투적이고 동지적인 특별한 관계이며 귀중한 재보라고 하면서 선대수령들의 유훈을 지켜 친선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웰남공산당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위협과 제재에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정치적안정을 유지하고있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의 훌륭한 정책과 강의한 의지에 감탄을 금할수 없으며 그에 적극적인 련대성을 표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웰남공산당은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발전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그는 두 나라 당사이의 래왕과 접촉을 강화하여 당건설과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며 두 당사이의 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체육선수후비육성에 깊은 관심을

우시군에서

우시군에서는 체육선수후비육성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체육부문 일군들은 군청소년체육학교를 잘 꾸려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만도 군에서는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 청소년체육학교를 보다 훌륭히 꾸려주었다.

군에서는 실력있는 체육교원들을 청소년체육학교에 배치하고 운동복과 체육기재들, 록화기와 콤퓨터를 비롯한 교육수단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었다. 그리하여 체육교수와 훈련지도의 정보화, 과학화수준을 높일수 있게 해주었다.

군청소년체육학교의 교원들은 선진체육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체육교수와 훈련지도에 적극 활용하고있다. 이 과정에 륙상, 롱구, 축구종목에서 특기를 가진 많은 체육선수후비들이 자라고있다.

군의 많은 학생들이 군청소년체육학교를 졸업하고 4.25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중앙체육단들에 선수로 선발된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군에서는 체육선수후비육성에 남모르는 수고를 바치고있는 교원들을 내세워주는 사업도 잘 해나가고있다.

군에서는 읍지구의 공원, 휴식터들에 누구나 리용할수 있는 운동기재를 새로 더 갖추어놓고 바다면 두메산골의 특성에 맞게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수영장을 잘 건설하여 그들이 적극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군에서는 청소년체육학교 학생들이 여러 체육경기들에 출전하여 거둔 성과를 소개선전하는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아세안창립 47돐에 즈음하여

주조 아세안위원회에서 연회 마련

동남아시아국가련합(아세안) 창립 47돐에 즈음하여 주조 아세안위원회에서 8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길성 외무성 부상,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레 짱 바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나스리 구스따만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끼얏띠싹 깨오반딧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옵 씨싸와다 캄보쟈왕국 특명전권대사, 쌀마 빈티 아흐마드 말레이시아 림시대리대사와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아세안성원국 국가수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세안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10일 9시부터 김일성경기장에서 홰불컵축구경기가 남자 롱악산림과 판모봉팀, 월미도팀과 압록강팀, 경공업성팀과 홰불팀사이에 벌어지게 된다.

이날 10시부터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사이의 활쏘기 1급 래왕경기가 압록강국방체육단에서 진행된다.

한편 모란봉체육단과 경공업성체육단사이의 쏘프트볼 1급 도전경기가 모란봉체육단에서 있게 된다.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단 도착

조선인들의 로씨야에로의 이주 150돐을 계기로 진행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자동차행진》에 참가할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인 김칠성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단이 8일 두만강역에 도착하였다. 조인철 라선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성건 해외동포사업국 부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남관계악화의 책임은 남조선당국에 있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정부성명 등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천명하고 필요한 대책들도 적극 따라세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근 70년동안이나 분렬의 아픔을 안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북남대결을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제는 없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응해나올 대신 외세와의 불순한 공모결탁을 강화하면서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최근 외세와의 공조로 반공화국압살의 개꿈을 실현하려는 남조선괴뢰들의 고의적인 긴장격화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외면하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게 송두리채 팔아먹는 천하에 어리석은짓이다.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리익만을 추구하면서 북과 남이 화합하여 통일에로 나아가는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력대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 조선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긴장조성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외세의 간계에 놀아나 동족을 원쑤처럼 대하고 반공화국대결에만 기를 쓰고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환시키는것은 조성된 엄중한 정세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과제이다.

최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의 화살을 조선반도에 집중하고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있다. 그 누구의 《핵위협》과 《미싸일도발》을 여론화하면서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는 한편 숱한 핵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일촉즉발의 정세를 몰아오며 북남사이에 쐐기를 더욱 깊숙이 박으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얼마전 우리의 주동적인 제의에 의하여 북남관계에 모처럼 화해의 분위기가 싹트고있는 때에 미제침략군의 핵항공모함전단이 남조선에 쓸어들고 미국과 괴뢰들의 련합해상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진것도 다름아닌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의 흉계에 따른것이다.

그런데 괴뢰군부깡패들은 우리 민족을 희생시켜 대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적극 동조하여 호전적광기를 부림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괴뢰군부패거리들은 8월 중순부터 감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북침핵선제공격계획인 《맞춤형억제전략》을 공식적용할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핵전쟁발발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분별없는 망동이다.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책동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선의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간고한 력사적행정에서 시종일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중시하여왔다. 해방후 민족분렬을 강요하는 미제의 《단독정부》조작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4월남북련석회의가 열린 때로부터 조국통일3대원칙을 핵으로 하는 7.4공동성명발표, 우리민족끼리리념을 명시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채택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화국은 력사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6.15공동선언의 리행으로 북남사이에 두텁게 얼어붙었던 대결의 장벽에 파렬구가 생기고 삼천리강토에 뜨거운 통일열기가 차넘친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로선과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경험은 북과 남이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선다면 얼마든지 북남관계도 개선하고 겨레의 숙망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공화국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것은 6.15통일시대의 북남화해열기를 되살리고 온 민족이 합심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가려는 숭고한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어떻게 대답해나서고있는가. 괴뢰당국자들은 북남관계개선과 관련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그 무슨 《화전량면전술》이니, 《량자택일의 압박》이니 하고 터무니없이 헐뜯으면서 동족의 순결한 의도에 먹칠을 하고 어떻게 하나 저들의 반통일책동을 합리화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특히 괴뢰국방부 장관 한민구역도를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을 제일 악의에 차서 걸고들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기승을 부리고있다.

민족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동족의 진심어린 제안은 뿌리치고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반공화국공조와 북침전쟁도발소동에 피눈이 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북남관계를 해치려는 고의적인 책동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눈앞의 집권위기수습에만 치중하면서 북남관계를 외세의 침략전략실현의 롱락물로 내맡기려드는것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린 내외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자위적인 군사력강화조치로 제압하여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주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민족의 운명을 수호할수 있는 자체의 강력한 힘이 없으면 대화도 평화도 실현할수 없다. 최근 우리 전략군이 초정밀화된 전술미싸일들에 대한 발사훈련을 련이어 진행한것은 핵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우리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흐려놓으려는 그 어떤 책동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마땅히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느껴야 하며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범죄적망동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박 철 준

모략군들의 서툰 오그랑수

최근 남조선에서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이 반공화국모략을 전문으로 하던 《중앙합동신문쎈터》의 명칭을 그 무슨 《북리탈주민보호쎈터》로 바꾸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중앙합동신문쎈터》를 통해 감행해온 저들의 용납 못할 죄악을 가리우면서 《보호》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보다 악랄하게 벌리기 위한 서툰 오그랑수, 유치한 기만극이다.

《중앙합동신문쎈터》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랍치와 《간첩》사건조작에 광분하면서 인권을 처참히 유린하고 북남대결을 극구 조장한 악명높은 반공화국모략기구라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은 《중앙합동신문쎈터》를 운영하면서 유인, 랍치해온 우리 주민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고문 등으로 《귀순》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을 떼없이 만들어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였다. 《중앙합동신문쎈터》의 깡패들이 야만적인 고문과 위협공갈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등 각종 터무니없는 사건들을 꾸며내고 그것을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적극 써먹은 사실은 내외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냈다. 《중앙합동신문쎈터》야말로 잔인무도한 인권유린과 더러운 음모로 북남관계를 심히 해치면서 동족대결을 적극 조장해온 악의 소굴로서 통채로 불살라버려야 마땅하다.

그곳에서 모진 정신육체적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지금도 괴뢰정보원의 파쑈악당들을 울분에 찬 목소리로 단죄하고있다. 《중앙합동신문쎈터》가 당장 해체해버려야 할 남조선판 《판따나모》로 지탄받고있는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저들의 치떨리는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모략기구를 없애버릴 대신 잔꾀를 부리며 민심을 우롱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중앙합동신문쎈터》를 《북리탈주민보호쎈터》로 둔갑시킨것은 여론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반공화국모략기구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그를 한사코 유지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이름이나 고치고 《보호》라는 간판이나 붙인다고 하여 반공화국모략기구의 목적과 사명이 달라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더우기 괴뢰들은 《중앙합동신문쎈터》의 이름만 고쳤을뿐 오히려 내부기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관》의 탈을 쓴 모략군들을 더욱 늘이였다. 이것이 그 무슨 《보호》의 명분밑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랍치와 《귀순》공작을 더욱 판이 크게 벌리면서 《간첩》사건들을 계속 조작해내여 동족대결에 악용하려는 흉심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반공화국모략기구의 명칭에 붙은 《보호》라는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하는것은 묻지 않아도 뻔하다.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하여 표류하는 우리 선원들을 강제로 《귀순》시키려고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미쳐날뛴자들이 《북리탈주민보호쎈터》라는데서 무슨 음모인들 안꾸미겠는가. 이제 《북리탈주민보호쎈터》는 《중앙합동신문쎈터》보다 더 요란한 《간첩》사건들을 조작해내게 될것이다.

괴뢰패당이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악명높은 모략기구를 해체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여 간판바꾸기놀음으로 더욱 강화하면서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은 그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안중에도 없이 북남사이의 체제대결과 반공화국모략에 갈수록 미쳐날뛰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라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아무리 잔꾀를 부리여도 반공화국모략과 북남대결에 명줄을 걸고있는 저들의 추악한 몰골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집권세력의 기만적술책에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당국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북리탈주민보호쎈터》를 해체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리 성 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범죄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언론들에 의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범죄진상이 드러나 내외의 커다란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위안부〉녀성들에 대한 불편한 비밀》이라는 글에서 괴뢰정부의 묵인조장하에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촌들에 성매매업소들이 설치, 운영되여 온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군기지촌 성매매업소에 끌려간 녀성들의 대다수는 빈곤에 시달리던 녀성들과 폭력배들에게 랍치되여 팔려간 녀성들로서 일단 기지촌으로 들어가면 제발로 걸어나올수 없다고 한다. 더우기 남조선괴뢰정부가 기지촌을 직접 관리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녀성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면 기지촌녀성들을 《애국자》라고 하면서 미군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강박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는 그러한 《미군위안부》녀성들이 수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미군성노예범죄실상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등도 미군성노예범죄에 대해 폭로한바 있다.

남조선녀성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범죄는 과거 일제가 조선녀성들에게 감행한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행위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것으로서 우리 조선녀성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악랄한 유린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범죄를 천추에 용납할수 없는 가장 극악한 반인권만행으로, 현대판 특대형반인륜적범죄로 락인하면서 전체 조선녀성들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 피묻은 군화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짐승도 낯을 붉힐 온갖 변태적이고 치떨리는 성노예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여왔다.

동두천과 평택, 의정부, 부평, 리태원, 부산 등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있는 모든 곳에서 수많은 남조선녀성들이 양키들의 성노리개로 무참히 릉욕당하고 목숨까지 빼앗겼다.

미제야수들은 미군기지촌들에서 감행하는 성노예범죄로도 성차지 않아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임신부이건 나어린 소녀이건 할머니이건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하였다.

백주에 어린애를 업은 녀인을 집단적으로 륜간한 끝에 야수적으로 학살한 의정부집단륜간사건, 임신부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 반항하자 군화로 국부와 배를 마구 짓밟아 잔인하게 죽여버린 임신부학살사건, 나어린 소녀를 병영에 끌고가서 집단릉욕하려다가 저항한다고 목졸라죽인 소녀집단륜간사건, 세인을 경악시킨 윤금이살해사건 등 미제침략군야만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귀축같은 만행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범죄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에 의해 적극 비호조장되고있다.

미국남조선협상들에서 미군성봉사문제가 모의된 사실, 미군기지들에 륜락시설들이 간판까지 내걸고 뻐젓이 운영되고있는 사실, 성병관리소를 운영하고있는 사실, 성폭행범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본국으로 빼돌리고있는 사실 등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괴뢰패당이 미군기지촌녀성들에 대해 《애국자》라느니, 《한미우호증진에 기여》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순종을 강박하고 미제야수들이 남조선녀성들의 정조를 짓밟고 잔인하게 학살하는데 대해 항변 한마디 할수 없게 법과 강권을 휘두르고있는것이다.

현 괴뢰집권자가 청와대에 들어앉은 후에도 남조선녀성들의 비참한 성노예처지는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미제침략군의 치떨리는 성범죄는 오히려 극심해지고있다.

이 세상에 자기 민족 녀성들을 외국강점군에게 성노리개로 섬겨바치고 침략군의 성범죄를 비호두둔하면서 비굴하게 놀아대는 쓸개빠진 남조선괴뢰들과 같은 추악한 역적의 무리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고 친미역적무리들이 있는 한 치욕의 력사는 계속될수밖에 없으며 남조선녀성들은 성노예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남조선녀성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과 온 겨레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백년숙적 미제의 죄악을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8월 8일
평 양

《순환배치》는 북침을 위한 전진배치

지난 1일 《F-15E》전투기 12대가 미국본토의 공군기지를 출발하여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로 날아들었다. 이 전쟁까마귀들은 그 무슨 《대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미공군의 조선반도 《순환배치》계획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남조선에서 《도발대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미제는 지난 2009년 남조선에서의 《아파치》직승기철수로 초래된 《대북전력공백》을 메꾼다고 하면서 미국본토와 해외군사기지들에 있는 전투기들을 3~6개월을 주기로 남조선에 배비하여왔다. 이것이 바로 《순환배치》이다. 기종은 주로 《F-16》계렬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F-15E》전투기들을 끌어들이였다.

무엇때문인가.

《F-15E》전투기는 미공군의 주력전투기로서 《F-15》계렬가운데서 성능이 제일 높다고 한다. 주야간에 관계없이 공대공, 공대지정밀타격임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하는 《F-15E》전투기는 매우 위험한 선제공격수단으로 되고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 등에 이 전투기들을 투입하여 악명을 떨치게 하였다.

《F-15E》전투기의 남조선배비는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으로 된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번의 《순환배치》가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변명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방어적조치라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골수에 배긴 저들의 북침야망을 결코 가리울수 없다.

미제호전광들은 저들의 모험적인 북침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공중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배비하며 전쟁준비에 광분해왔다. 미국이 새로운 조선전쟁에 대비한 공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써먹고있는 수법의 하나가 바로 전투기들의 《순환배치》이다.

미제는 최근년간 유사시에 대비한 현지적응을 구실로 최신전투기부대들을 정기적으로 남조선강점 미공군기지들에 전개하여 새 전쟁도발을 위한 출격진지를 차지하게 하였다. 《F-15E》전투기의 배비도 그러한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이 전투기들을 조선반도의 지형과 북침작전환경에 익숙시켜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자는것이 호전광들의 흉심이다. 《F-15E》전투기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미제침략군 공중타격무력의 공격진입시간이 훨씬 단축되게 된다. 호전광들은 이런 방법으로 저들의 북침선제공격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그 어떤 군사적압력을 가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번에 미공군의 《F-15E》전투기들이 남조선에 날아든것은 앞으로 있게 될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에 대해서는 호전광들자신이 토설하였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한 인물은 이 전투기들이 남조선괴뢰공군과 함께 그 누구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타격》하는 련합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에 주력할것이라고 떠들면서 당면하여 8월 중순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게 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미공군무력의 《순환배치》라는것이 명실공히 북침선제공격을 위한 전진배치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제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파괴되고 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오고있다.

지금 내외여론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이 완화되고 하루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터무니없이 《북의 도발》에 대해 요란히 광고하며 핵전쟁도발책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다. 현실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면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장본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에 핵선제공격을 가하려고 날뛰고있지만 거기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조선반도평화실현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7월 27일 서울에서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 조계사에서 단체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이 전쟁기지인 제주해군기지건설강행의 주범이라고 까밝혔다. 뿐만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재침의 길에 나서도록 부추기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고있지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삶의 터전을 지키고 정의와 민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평화와 통일에로 가기 위한 투쟁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반도의 미래가 평화통일에 있다는 내용으로 된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이어 단체는 일본대사관앞으로 자리를 옮겨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반대하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조선중앙통신】

철령아래 사과바다에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미더운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군중을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고산과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대오의 기수, 돌격의 나팔수가 되여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618건설돌격대 지휘관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위훈의 밑거름이 되여

남포시려단 강서구역대대는 려단적으로 일 잘하는 대대, 전투력있는 대대로 불리우고있다.

이런 성과속에는 **남포시려단 강서구역대대 대대정치지도원 권영태동무**의 숨은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기계수단이 부족하면 자체로 창안하여 만든 작업도구로 많은 토량을 처리함으로써 맡겨진 토지정리계획을 앞당겨 끝냈다.

지휘관의 참모습

황해북도려단 곡산군대대 대대장 리준일동무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한다면 뒤모습이 고운 일군이라는것이다.

이것은 대오의 앞장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달려나가는 그에 대한 대원들의 평가이다.

언제인가 통나무를 제재할 임무가 대대에 맡겨졌을 때였다.

대대에는 제재설비도 없었고 제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

설비들을 구하기 위해 떠나갔던 리준일동무가 며칠만에 돌아왔을 때 대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며칠밤을 꼬박 새운 그의 두눈은 충혈이 지였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지 신발창이 말이 아니였다.

제재목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대대는 맡겨진 과제를 기일보다 앞당겨 수행하게 되였다.

돌격선에 선 대원들의 시점에서 지휘관의 참모습은 리준일동무와 같이 앞채를 메고 선두에서 달려나가는 뒤모습에 있는것이다.

우리 맏형

일판에서는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미더운 맏형, 생활에서는 후더운 인정미가 철철 넘치는 정다운 맏형!

바로 이것이 대대의 돌격대원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량강도려단 대홍단군대대 대대장 한룡주동무**의 모습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돌격대생활을 시작한 한룡주동무, 려단적으로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어려운 공사과제는 남먼저 맡아나서는 그의 만만한 패기와 일욕심은 돌격대원들의 심장속에 투쟁의 불, 위훈의 불을 활활 지펴주고있다.

우리 대대장과 함께라면 높은 산도 단숨에 톺고 험한 진펄도 웃으며 건느리라!

대대안의 모든 돌격대원들이 이런 마음으로 용기백배하여 날마다 혁신적성과를 이룩해가고있다.

일만 잘해서야 어찌 진짜배기 맏형이랴. 대대에 튼튼히 꾸려진 축산토대며 갖가지 남새가 자라는 부업밭에도 돌격대원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그의 진정이 어려있다.

우리 맏형!

돌격대원들이 사랑하는 이 부름, 참으로 값높은 호칭을 더욱 빛내여갈 열의를 안고 대대장 한룡주동무는 오늘도 대대의 앞장에 서있다.

돌격전의 기수

함경남도려단 도수산관리국대대 대대장 김성호동무가 618건설돌격대에서 일해온지도 어느덧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삼지연군으로부터 고산과수농장건설장에로 이어진 그의 발자욱마다에는 아낌없이 바쳐온 불같은 헌신의 땀방울들이 보석처럼 깔려있다.

그에게 있어서 건설부문은 너무도 생소하였다. 하지만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는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것을 드팀없는 삶의 신조로 삼았기에 그는 어떤 공사과제가 맡겨져도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어김없이 수행하군했다.

도수산관리국대대는 언제나 려단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왔다.

대대에 작업과제가 맡겨지면 김성호동무는 현지를 직접 밟아보면서 사전료해를 면밀히 진행한데 기초하여 방도를 찾아내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고산땅에 이동해온 대대가 처음으로 맡은 작업은 토지정리였다. 방대한 작업과제에 비해 대대의 운반수단은 너무도 보잘것없었다.

현지료해를 마친 김성호동무는 대원들과 함께 손달구지들을 만들었다. 김성호동무와 대원들은 그 수십대의 손달구지들로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대대앞에 맡겨진 토지정리과제를 기일보다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미더운 지휘관인 김성호동무를 가리켜 돌격전의 기수라고 사랑과 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정든 고향집의 어머니처럼

만포시대대는 자강도려단의 제1전투부대이다.

이 대대가 지닌 강한 전투력의 비결은 오랜 당선전일군인 **자강도려단 만포시대대 대대정치지도원 김국철동무**의 능숙한 정치사업에 있다.

전투장에 나선 아침이면 그는 친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세심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돌격대원들의 얼굴빛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누가 아파하지 않는가, 어떤 말 못할 사연으로 전투적사기를 잃은 대원은 없는가. …

결함을 일깨워주는 그의 목소리는 조용조용하여도 사랑과 진정이 넘치여 대원들의 마음속을 파고든다.

백두산의 정취를 불러오는 우등불가에서 그가 들려주는 구수한 체험담은 돌격대원들에게 못 잊을 추억을 더해준다.

기쁨도 아픔도 남먼저 헤아려주고 걸음걸음 당의 뜻으로 이끌어주는 참된 정치일군이 있기에 돌격대원들은 대대를 고향집뜨락처럼, 정다운 어머니의 품처럼 여기고있다.

돌격대원들을 자석과도 같이 끌어당기는 견인력과 후더운 인정미, 자기 대원들과 관련된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끝까지 책임져주는 높은 책임감은 결코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머니가 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이 그의 심장속에서 어머니사랑의 불길을 뜨겁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런 지휘관과 함께라면

평양시려단 보통강구역대대에 가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말이 있다.

—우리 대대장과 함께라면 주저할것도 두려울것도 없다.

평양시려단 보통강구역대대 대대장 어광수동무는 14년간을 대대지휘관으로 일해오고있다.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려온 그의 머리에도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광수동무는 오늘도 청춘의 패기와 열정에 넘쳐 능숙한 전투지휘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대를 이끌어가고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직접 1 000리나 떨어진 곳에서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육중한 보도블로크생산설비를 수송하여 설치하고 성과적으로 가동시켰으며 불리한 조건에서도 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한달동안에 근 5만장의 보도블로크를 생산함으로써 고산과수농장 연혁소개실과 병원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하여 대대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콩크리트지지대생산을 위한 철근조립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어광수동무와 같은 이런 미더운 지휘관들이 있어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희한하게 펼쳐질 그날이 앞당겨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미국의 힘의 정책은 총파산을 면할수 없다

21세기에 들어와 10여년세월이 흘렀다. 충격과 사변으로 뒤엉킨 이 나날은 미국이 쇠퇴몰락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국의 쇠퇴몰락은 그의 힘의 정책이 파산되여가는것을 보고 알수 있다.

한때 미국은 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무쇠주먹》으로 《평정》하군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으르렁거리기만 할뿐 감히 《무쇠주먹》을 휘두를념을 못하고있다. 반미투쟁이 그만큼 강화되였기때문이며 그것을 짓누르기 힘들 정도로 미국의 힘이 약해졌기때문이다.

현시대에 와서 누구도 힘의 정책을 찬성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절대다수의 나라들은 강권과 전횡이 횡행하는 낡은 세계를 없애고 주권존중의 평등한 새 세계를 건설할것을 요구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수많은 나라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한 악랄한 책동을 벌리였다. 그 도수는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21세기 첫해에 정권을 쥔 신보수주의자들이 작성한 《미국의 새 세기계획》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군개혁의 달성은 진주만공격과 같은 새로운 사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랜 시간이 걸릴것이다.》

미국에서 드디여 제2의 진주만공격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9.11사건이였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력사가 주는 천번중의 단 한번의 기회를 만났다고 쾌재를 올렸다. 힘사용의 담당자인 미군을 보다 기동성있는 침략무력으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9.11사건의 발생은 세계에 많은 의문을 던져주었고 숙제로 남겨놓았다. 최근년간에 밝혀진 여러 증거자료들은 그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확신을 세상사람들에게 주고있다.

미국의 힘의 정책은 유엔도 국제법도 안중에 두지 않는 무지막지한 깡패로선이다.

《미국의 새 세기계획》의 골자는 세계를 미국의 의도에 맞게 개편하는것이였다. 그러자면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야 했다. 밝혀진데 의하면 부쉬정권이 작성한 공격대상명단에는 60개 나라가 올랐다.

당시 미국방성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7개 나라들에 대한 5개년군사계획을 작성하고있었다고 한다. 9.11사건발생후 《테로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들이친 아프가니스탄은 셈에도 없었다. 5년동안에 이라크, 수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과의 전쟁을 련속벌림으로써 《미국의 새 세기계획》실현의 화약내와 피비린내가 풍기는 무대를 펼쳐놓으려 하였다.

2002년 9월에 미국회는 부쉬에게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쟁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라크가 5개년계획실행의 첫 타격대상이 되였다. 미국은 유엔무대에서 싸담 후쎄인정권이 핵폭탄을 보유하려 한다는 허위선전을 늘어놓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동의도 받음이 없이 이라크를 들이쳤다.

미국은 실력면에서 볼 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두개 전쟁을 련속적으로 치르었다. 그러나 별치 않게 생각한 그 두개 전쟁마당이 《유일초대국》이 강행하는 힘의 정책을 파산에로 몰아가는 함정으로 될줄을 미집권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두개의 전쟁에서 돌이킬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막대한 인적, 물적손실을 입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강점하고 그 나라들의 정권을 뒤집어엎는데까지 걸린 시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은 지속되였고 미국을 고통속에 몰아넣었다.

이라크에 대한 8년간에 걸치는 군사적강점기간 4 500명의 미군이 죽었다. 13년이 되여오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강점기간에 죽은 미군수는 거의 2 200명이 된다. 두 전쟁에서 부상당한 미군수는 5만명이 훨씬 넘는다.

세계는 두개의 전쟁을 단기전으로 쉽게 끝낼줄 알았던 미국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수조US$에 달하는 자금을 탕진하면서도 장기전을 벌리며 쩔쩔매게 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힘으로 못할짓이 없을것처럼 날뛰던 미국이 어떻게 되여 저런 몰골이 되고있는가 하는것이였다. 세계에 만연되던 미국에 대한 공포심이 조소로 뒤바뀌고 대미리탈움직임이 급격히 빨라졌다.

힘의 정책강행으로 미국경제는 붕괴직전에 이르렀다.

방대한 침략무력의 유지, 첨단무기개발, 두개의 전쟁수행을 위해 세계 주요렬강들의 군사비를 다 합친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군비로 쏟아부은통에 미국의 국가채무, 재정적자는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엎친데덮친 격으로 금융피물들이라고 불리우는 대규모은행들과 보험회사, 주택대부금회사들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게 되였다.

오랜 력사를 가졌다고 하는 미국의 다국적금융회사들이 맥없이 쓰러지고 방대한 실업대군이 형성되였다. 그런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더욱 심화되여 2011년에는 1%의 최부유층이 최하층의 90%보다 더 많은 재부를 가지고있다는것이 알려지게 되였다. 미국민의 분노가 끝내 폭발하고 거리마다에서 각종 시위투쟁, 항의투쟁이 벌어졌다.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든 미행정부는 재정절벽, 련방정부자동지출삭감, 정부폐쇄, 채무불리행 등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각종 사태와 악순환을 겪으며 곤경을 치르고있다.

미국딸라의 시세는 자연히 폭락하고 딸라에 침을 뱉는 나라들, 기업들이 더욱 늘어나고있다.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 국제금융통화체계가 밑뿌리채 뒤흔들리며 붕괴되고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이 작성한 《미국의 새 세기계획》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미국의 힘의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강행으로 하여 총파산되고있다.

원래 미국은 1950년에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이미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그 전쟁도발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무분별하게 힘으로 강행한 첫 시도였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을 멸망의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한 시초로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힘으로 압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극도에 달하였다. 《미국의 새 세기계획》실행을 위한 핵선제공격명단에 미지배층이 우리 공화국을 우선순위에 올렸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력사적사실이다. 미국의 핵위협은 날이 갈수록 가증되였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핵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가 정당한 자위적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던 낡은 시대는 끝장나게 되였다.

우리의 핵보유로 하여 핵우위에 기초한 미국의 패권주의적국제질서가 붕괴되고있다. 한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거지발싸개보듯 하던 미국이 이제는 당황망조하여 패권주의적국제질서를 부지해보려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비법불법의 결의들과 성명들을 발표하면서 자기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강행을 정당화, 합법화해보려 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해가는자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최근에 제작된 미국의 한 장편기록영화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제국의 지배는 영원할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력사의 큰 한단락을 전후하여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일본 그리고 20세기초에는 짜리로씨야, 오스트리아마쟈르제국, 오스만뛰르끼예제국이 소멸되였다. 미국의 지배도 조만간에 종말을 고할것이다.》

미국내에서도 인정되고있는 미국지배의 종말, 이것은 21세기 힘의 정책의 완전한 파산으로 될것이다.

리 경 수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인사 담화 발표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전국운수로조련맹 위원장 샤프릴 아르시야드가 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8월 15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신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해방후 조선은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다.

조선이 오늘과 같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많은 제안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김정일각하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러나 조선의 통일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연습과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대결만을 고취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통일실현의 장애로 되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대결과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온갖 적대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촉구한다.

또한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와 노력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의 군력강화는 정당한것

체스꼬신문의 글

체스꼬신문 《할로 노비니》 1일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위권을 행사하고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지난 7월 1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비공개협의회라는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단거리미싸일발사까지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몰아 《규탄》하는 발표놀음을 벌리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매개 나라는 자위권과 무장장비를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근에 진행한 전술로케트발사도 그러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다.

조선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실천적인 조치도 취하였으나 미국은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연습에 매여달리면서 조선의 제안을 거부하고있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습들에서 수많은 미싸일들을 발사하고 핵장비들까지 동원하여 실동훈련을 공공연히 벌리고있으나 유엔은 한번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고있다.

미국이 벌리는 군사연습이 전면적인 무력침공에로 넘어가지 않는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리는 군사연습이 도발적성격을 띠고있는 조건에서 조선이 군력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정당한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얄미운 승냥이몰골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외무상이 미국무장관 케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가안전보장국의 정탐활동문제를 되게 문제시하였다. 그는 케리에게 정탐활동은 우리에게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하고있다라고 오금을 단단히 박으며 내쏘았다. 세계제패야망에 사로잡혀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고 간첩행위를 일삼는 미국에 대한 당연한 질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미국무장관의 말이 교활하기 짝이 없다. 그 나라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공개석상에서 정보활동문제를 론의하지 않는다.》라고 발뺌질하였던것이다.

대답이 궁할 때에는 구차스러운 변명이 뒤따르기마련이다. 어느 나라 대통령의 목소리든지 우리 특공대원들의 귀에 걸리지 않는것이란 거의나 없다고 한 미국가안전보장국의 한 관리의 말이 모든것을 말해주었는데 케리가 무슨 변명을 더 할수 있었겠는가.

국가들간의 초보적인 관례와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백번 싸다. 케리가 세계가 좁다하게 싸다니며 이 나라, 저 나라에 추파를 던지고 안면신경을 써가며 갖가지 조화를 부려도 그것은 공연한짓이다.

세상사람들이여, 웃는 승냥이의 얄미운 몰골을 한번 상상해보시라. 그러면 케리의 추한 몰골이 선명하게 안겨올것이다.

앞에서는 《친선》을 부르짖고 선한 웃음을 지으면서 뒤등에 칼을 박을 궁냥만 하는 미국을 진실한 벗으로 대상할 나라가 과연 어데 있겠는가.

리 현 도

뽈럭불가담운동 팔레스티나문제위원회 상급회의 진행

뽈럭불가담운동 팔레스티나문제위원회 상급회의가 4일 이란의 테헤란에서 진행되였다.

최근 가자지대사태와 관련하여 소집된 이 회의에는 까타르, 쿠웨이트, 오만,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슈, 수단, 우간다 등 운동성원국 외무상들과 고위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침략행위와 봉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공동체에 요구하였다.

그들은 또한 팔레스티나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원조를 시급히 제공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것을 호소하였다.

핵권리를 수호할 립장 표명

이란핵수석협상자 아빠스 아라그치가 1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나라의 핵권리를 수호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핵관련회담에 참가하는 이란대표단의 선차적인 과업은 나라의 평화적핵권리를 수호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란인민의 확고한 결심과 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전적인 지지는 대표단에 있어서 하나의 정신적인 힘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 에볼라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이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에볼라비루스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최근 서아프리카나라들에서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초래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나라들에서 비루스전파를 막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면 정부들과 해당 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서아프리카나라들 전염병 방지사업에서 협조

서아프리카나라들이 1일 에볼라비루스전파방지를 위한 수뇌자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는 기네, 리베리아, 시에라레온대통령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지역나라들에서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병의 전파를 시급히 막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병발생지역들을 격리시키는 등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데 관한 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무인기개발사업 추진

로씨야에서 최근 무인기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무게가 20t인 현대적인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개발이 각각 2015년, 2018년에 완성되게 된다고 한다.

당국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 반대

일본인들속에서 당국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교도통신이 2일과 3일에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0.2%가 당국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7월의 조사결과에 비해 5.8% 더 증대된것이라 한다.

심각한 물부족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많은 주민들이 먹는물부족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주의 톨레도시에서만도 40만명의 주민들이 먹는물부족난에 시달리고있다 한다. 2일 주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쌘프랜씨스코에서 1일 2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도이췰란드의 만하임시에서 려객렬차와 화물렬차가 충돌하여 2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기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무력증강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미해군장관은 한 연설에서 미해군이 최신《줌월트》급 스텔스구축함과 연안전투함 등을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비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재확인하는것으로 된다고 떠벌였다.

이스라엘의 살륙만행 규탄

칠레의 수도에서 최근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이슬람교도들을 비롯한 수천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며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량살륙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나라 주재 이스라엘대사를 추방할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 *

프랑스의 빠리에서 2일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을 규탄하는 항의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약 1만 1 5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무고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는 이스라엘을 살인자로 규탄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유태복고주의정권을 비호두둔하지 말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이날 리옹을 비롯한 나라의 여러 주요도시들에서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집회들이 벌어졌다.

* *

에스빠냐외무상이 7월 31일 한 연설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륙만행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으로 가자지대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부구조들이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며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만행은 21세기에 들어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중동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끝장내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

뛰르끼예외무성이 4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가자지대에 있는 한 학교에 포사격을 가하여 그곳에 피난해있던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은 유태복고주의정권이 인권과 국제법원칙들을 무시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살륙만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연피해

스웨리예의 중부지역에서 최근 산불피해를 입고있다.

여러날 계속된 산불로 4일현재 1만ha의 산림이 불타버렸다.

산불의 규모가 큰것으로 하여 진화작업이 곤난을 겪고있으며 산불은 몇주일이상 지속될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 *

이딸리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된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3일현재 4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부상당하였다.

* *

벌가리아의 미지아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3일현재 2명이 목숨을 잃고 500명의 주민들이 긴급소개되였다.

또한 도로들과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였으며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긴급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 *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 1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3명이 목숨을 잃고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조선중앙통신】

인디아에서 산사태피해

세계상식

온실에서의 남새재배와 닭기르기의 배합기술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온실에서 남새재배와 닭기르기를 배합하여 덕을 보고있다. 그에 의하면 배설물처리를 손쉽게 하고 수송원가를 줄이였으며 남새재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따로 구입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큰 경제적실리를 얻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200평정도의 남새밭에는 보통 25~30마리의 닭배설물을 유기질비료로 사용할수 있다. 연구사들은 닭배설물을 제때에 청소하고 닭장밑의 공기를 정상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닭장받침대의 높이를 70㎝로 높이고 닭장의 너비를 3m이내로 규정하였다. 보통 온실의 너비는 6~8m이므로 닭장의 너비는 온실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닭장의 길이가 50m인 경우(온실의 길이와 같음) 닭장의 면적은 약 150㎡이다. 만약 1㎡당 6마리의 분산사양밀도로 계산한다면 900마리를 기르는것이 적합하였다고 한다.

한편 닭을 기르는 반대켠에 남새를 심는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닭장의 위치를 반대쪽으로 옮기면 토양을 번갈아가면서 남새를 재배할수 있다. 결국 이런 온실은 자체의 작은 순환고리를 형성한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시험과정에 이 방법이 간편할뿐아니라 좋은 점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선 닭기르기환경이 좋아졌다고 한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며 동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또한 닭들에게 못쓰게 된 남새잎을 뜯어다 먹일수 있으므로 닭들이 실하게 자랄수 있다고 한다. 이런 남새잎들은 닭에게 있어서 특식이나 같다. 만약 병충해를 입은 남새가 있으면 즉시 뽑아서 닭에게 먹인다. 이렇게 하면 병충해를 줄이고 남새를 안전하게 재배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닭들이 보다 편안히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온실에 창문을 설치한다. 남새온실의 통풍창은 닭들이 뒤뜰로 나드는 문으로 된다.

온실사이의 공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닭들의 활동공간을 넓힘으로써 닭들이 자연과 친숙할수 있도록 해준다. 온실사이의 공지에 포도나 사과, 복숭아 등 키낮은 나무를 심으면 온실의 채광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아니라 닭들이 활동할 때 그늘을 지어줄수 있고 벌레나 떨어진 과일을 먹을수 있어 아주 좋았다고 한다. 또한 닭들이 토양이나 환경으로부터 전파되는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뿐아니라 토지가 비옥해져 남새의 품질도 개선할수 있다고 한다.

오늘 여러 나라들에서의 남새재배와 집짐승기르기의 결합방식은 큰 규모의 온실농장에 많은 리익을 주고있다.

본사기자

라틴아메리카에서 치렬해지고있는 로미대결

지난 세기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미국의 지위가 날로 약해지고있다.

지난 7월에 있은 로씨야대통령 뿌찐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사태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미국사이에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국제적이목을 모았다. 그만큼 로씨야가 라틴아메리카지역을 대단히 중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뿌찐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하는 과정에 여러 나라들과 군사, 경제문제들과 관련한 합의들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타격이 아닐수 없다.

로씨야와 꾸바사이의 관계만 놓고보자. 꾸바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고있다. 이번에 로씨야대통령은 꾸바방문에 앞서 쏘련시기부터 꾸바가 로씨야에 진 거액의 채무를 면제할데 대한 협정에 수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꾸바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떨어뜨렸으며 앞으로 로씨야와 꾸바사이에 군사정치대화도 진행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미국의 반꾸바제재에 파렬구를 낸것이다.

로씨야는 니까라과, 아르헨띠나, 브라질과도 중요한 경제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정들이 미국에 타격을 가한것은 물론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로씨야는 꾸바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더우기 손벽을 마주치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크림 등에 관한 모든 대외정치측면들에서 이 나라 지도부가 로씨야련방의 로선을 지지하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고 평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로씨야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고 우쭐대던 미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제압하려고 하고있다. 실지로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지난 5월에 로씨야련방안전리사회와 꾸바민방위전국리사회는 협조의정서를 체결하고 합동실무그루빠를 내오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마리엘항과 그옆에 화물출하장을 갖춘 국제비행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협정이 이번 방문과정에 체결되였다. 한편 로씨야는 꾸바와 기타 나라들에 위성항법체계 《글로나쓰》관측소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로씨야의 군사전문가는 이에 대해 로씨야의 선진기술이 이동할뿐아니라 미국의 잠재적인 목표들을 감시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현재 우크라이나정세를 둘러싸고 로씨야에 가해지는 미국의 군사적압력에 따른 강한 대응이라고 볼수 있다.

로씨야는 이번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자기들과 한 서렬에서 미국에 공동으로 맞서나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 계기를 통하여 각 방면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특히 군사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해 특별히 강조하였다.

로씨야는 앞으로 아르헨띠나에 동력, 반항공무장장비 등 군사기술분야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공급해주려고 하고있다. 이 분야에 대해 브라질 역시 관심을 표시하고있다. 브라질국방성은 로씨야회사 《알마즈—안쩨이》에 반항공우주방어체계개발과 관련하여 협조해줄것을 요청하였다.

오늘 로씨야의 립장은 명백하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자기 나라 가까이로 끊임없이 접근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가 계속 확대되고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자는것이다.

로씨야군부의 한 고위인물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협조에 대해 이렇게 언명하였다.

《우리는 임의의 경우에 유럽에 있는, 가깝게는 우크라이나에 생겨날수 있는 미국미싸일방위체계에 맞서기 위한 이러저러한 다른 자체방위수단을 가져야 한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어제날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지위는 날로 약화되고있으며 이 지역 나라들의 반미움직임은 로씨야와의 관계강화에로 이어지고있다.

외신들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로미대결뿐아니라 미국 대 다른 대국들과의 대결전도 더욱 치렬해질수 있다고 전하고있다.

세계곳곳에서 저들만이 우세하고 독점할수 있다고 우쭐대던 미국의 패권주의적야망이 파산될 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신 경 섭

ㄱ-41124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